

문학적 영감 불러일으키는 '상상의 보고'

작가들이 말하는 '나의 도감 활용법' ...

동·식물 표준 명칭과 생태적 특징 파악 위해 참조해

색깔 묘사 위해 즐겨 읽어

허만하 | 시인

교과사에서 나온 《한국의 수목》(김태욱)이나 현암사에서 나온 《쉽게 찾는 우리꽃(전3권)》(김태정) 등을 많이 본다. 이 도감들에서 나무의 생태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다양한 야생화의 종류를 배우기도 한다. 특히 색깔을 묘사하기 위해 도감을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본다. 도감에서 도라지꽃을 찾아보고 '도라지꽃빛 바다'라고 묘사하는 식이다. 물고기의 학명이 자세하게 나온 일본판 도감도 5~6종 정도 본다.

눈으로 보고 도감에서 확인하고

송기숙 | 전남대 국문과 교수·소설가

현암사에서 나온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새 백가지》(이우신, 현암사)와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꽃 백가지》(김태정, 현암사)를 가장 많이 참조한다. 이 책들은 우리 일상생활과 가까운, 일반적이고 친근한 생물을 소개하고 있어 좋다. 특히 휴대하기도 편리하기 때문에 산에 직접 들고 가서 그때 그때 식물과 대조해서 보기도 한다. 시골의 분위기를 묘사할 때 많이 참고하고, 사투리를 피하고 표준어를 쓰는 데도 도움이 된다. 최근에는 나무가 등장하는 동자승 이야기를 담은 단편을 쓰고 있는데, 산에 가서 나무를 일일이 사진찍고, 이들에 대한 정보를 도감에서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적인 식물도감들은 오히려 사진에 나무나 풀 등의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아 보기가 까탈스럽다.

심심파적으로 뒤적거리

황동규 | 서울대 영문과 교수·시인

물고기도감·새도감·식물도감 등 종류별로 10여종 정도 있다. 그냥 평소에 많이 뒤적거리 보

는 편이다. 과거에 봤는데 잘 기억나지 않는 생물의 이름을 확인하기도 하고, 워낙 자연을 좋아하니깐 간접적인 관찰을 위해서도 본다. 하지만, 도감들이 대개 단편적인 사진 한장씩만 실고 있어서 생태적인 특징을 파악하기 어렵다. 예컨대 어떤 나무의 열매맺은 모습을 보고 싶는데, 잎이 푸를 때의 사진 한장만 실려 있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진보다 특징적인 그림을 통해 동식물을 소개한 도감이 나왔으면 좋겠다.

흔히 보는 동·식물 생태 알아봐

문순태 | 광주대 문예창작과 교수·소설가

생물도감류로 10여종 있는데, 그 가운데 동아출판사에서 펴낸 식물도감과 중앙일보사에서 펴낸 《생물 이야기》 시리즈를 가장 많이 본다. 집 근처 대밭에 사는 새 이름은 무엇인지, 어떤 나비는 어떤 풀에서 사는지 등 주로 친근한 동식물의 생태정보를 참고한다. 《나무백과(전5권)》(임경빈, 일지사)도 나무의 생태적 특징이 집중적으로 설명돼 있어 즐겨 보는 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감들은 동식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분류체계도 거칠어 아쉽다.

나무 소재로 시 쓸 때 참조해

최하림 | 시인

가장 많이 보는 도감은 《한국식물검색도감》(고경식, 아카데미서적)이다. 이 책을 보고 어떤 나무가 어느 지방에 사는지, 색깔과 모습은 어떠한지 확인한다. 작품에 나무를 등장시킬 때면 항상 도감을 보면서 내 의도에 맞는지 따져본다. 하지만 도감이 대개 비싸고 일반인이 보기엔 너무 전문적이다. 우리 같은 작가나 일반인들이 가볍게 사서 즐겁게 볼 수 있는 도감이 나왔으면 좋겠다.

동·식물 이름 변천사 알려줘

박태일 | 경남대 국문과 교수·시인

나는 도감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다. 식물도감·동물도감·조류도감 등 총 20여종의 도감이 있다. 그 가운데는 해방 이전에 출간된 것도 있고 1950년대부터 최근에 나온 것까지 발간시기가 다양하다. 이를 통해 동·식물 이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새를 소재로 시를 쓸 때, 발간 연대가 다른 여러 도감을 살펴서 작품의 배경과 맥락에 가장 적합한 이름을 선택한다. 또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동·식물 관련사항도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작품을 쓰고 도감과 일일이 비교·검토해 확인한다.

식물과 인간에 대해 사색케 해

안정옥 | 시인

한 가지 소재를 붙들고 집중적으로 작품을 쓸 때는 전문적인 도감이 많이 필요하다. 예전에 물고기에 관한 연작시를 쓸 때는 최기철 선생이 펴낸 물고기도감을 봤다. 평소에는 정신세계사에서 나온 《식물의 정신세계》(피터 톰킨스 외)를 즐겨 본다. 이 책에 실린 설명은 생태정보를 알려줄 뿐 아니라, 식물과 인간에 대해 사색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때론 자연에서 본 특이한 생물의 정보를 도감에서 찾아 활용하기도 한다. 지난번 내장산 꼭대기에서 사람주나무를 우연히 봤는데, 도감의 도움을 받아 작품에 쓰기도 했다.

어린시절 추억 담긴 생물도감

구효서 | 소설가

내가 작품을 쓰기 위해 도감에서 찾아보는 동식물은 일상에서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시골의 길가에 피는 보리잡초·개망초·

절경이나 싸리나무, 귀뚜라미 같은 것들이다. 내가 주로 애용하는 도감은 중학교 때 과학교과서의 부교재로 사용했던 생물도감이다. 출간된 지 30년이 넘는 이 도감은 편집이 다소 조잡하지만, 찾아보기 쉽고 우리 정서에 어울리는 정감있는 생물들이 담겨 있다. 시골에서 자라 각 생물들의 이름과 특성은 얼추 알고 있지만, 사투리를 피하고 원래 이름을 찾기 위해 도감을 활용한다. 아카데미서적에서 나온 《한국자원식물도감》(윤세영)도 우리 산과 들에 사는 식물들이 많이 실려 있고, 그림이 커서 자주 참고한다.

이름이나 생태 파악 위해 이용

송재학 | 시인

동식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도감을 많이 보는 편이다. 나무에 관한 도감만 3~4종 있으며, 그밖에 여러 종류의 도감이 있다. 대체로 동식물의 정확한 이름이나 생태적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도감을 본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감이 자료사진이 부정확하고, 분류체계가 단순해 아쉽다. 앞으로 풀잎의 형태라든가 잎맥의 모양 등 세분화된 분류체계에 따라 정확히 정리한 도감이 나왔으면 좋겠다.

초등용 식물도감에서 도움 받아

원재길 | 소설가

현암사에서 나온 <우리 문화 우리 자연> 시리즈를 많이 보는 편이다. 최근 펴낸 《적들의 사랑 이야기》(민음사)를 쓸 때도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새 백가지》(이우신, 현암사)와 초등학생용 식물도감이 많은 도움이 됐다. 새나 곤충에 관한 일본의 도감을 보기도 하는데, 이 경우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새나 곤충의 습성만 참고한다. 기계류·신체·선박·버스 등을 다룬 외국의 도감도 본다. 국내에서도 우리 옷을 포함한 민속 관련 도감이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담은 도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냥, 재미로 읽는다

최두석 | 한신대 한국문화학부 교수·시인

평소 《나무백과(전5권)》(임경빈, 일지사)를 가장 많이 본다. 산에 갔을 때 독특한 나뭇잎들을 가져와 도감을 보고 그 나무의 정보를 확인하기도

한다. 하지만, 생태정보가 자세하게 기록된 도감이 드물어 관련서적까지 두루 참조한다. 현암사에서 나온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나무 백가지》(이우미)와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새 백가지》(이우신) 등은 재미있어서 평소에 읽는 도감이다.

창작활동에 큰 도움 받아

안도현 | 시인

식물도감·곤충도감·조류도감·나비도감 등 여러 종류의 도감이 있다. 특히 《연어》(문학동네)를 쓸 때 물고기도감을 많이 봤다. 사실 나는 연어를 한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도감에서 연어의 헤엄치는 모습이나 생태 등 기초자료를 얻었다. 작품을 쓰지 않을 때도 도감을 자주 뒤적거린다. 보는 재미가 쏠쏠하기 때문이다. 자연을 직접 체험할 기회가 많지 않아 도감에서 본 것들이 내 안에 쌓이는 것 같다. 도감을 통해 물푸레나무가 물가가 아니라 산속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됐다. 평소에 가장 애용하는 도감은 《한국의 자원식물(전5권)》(김태정, 서울대출판부)이다.

정확성을 위해 꼭 참조해

고재종 | 시인

《한국의 야생화》(김태정, 교학사)와 현암사에서 펴낸 <우리 문화 우리 자연> 시리즈를 포함해 20~30여종의 도감이 있다. 하지만 정작 많이 활용하는 편은 아니다. 어린 시절, 들길에 피었던 풀들의 이름을 잘 몰라 확인하는 정도다. 나는 농촌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생체험에 의존해 작품을 쓴다. 다만 예전에 피라미의 산란기가 6~8월인데 작품에 봄이라고 묘사한 적이 있어, 그 이후부터는 항상 도감을 통해 확인한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꽃 백가지》(김태정, 현암사)의 경우 꽃에 얽힌 이야기가 재미있어 자주 보는 편이다.

바다에 관한 풍부한 상식 담겨

한창훈 | 소설가

신안군청에서 펴낸 정약전의 《자산어보》를 가지고 있다. 섬에 관한 산문집 《바다도 가끔은 섬의 그림자를 들여다본다》(실천문학사)를 펴낼 때 자주 들여다봤다. 고향이 거문도라 바다에 관한

소설을 많이 쓰는 편인데, 많은 참고가 된다. 어부들이 그물로 고기를 잡는 법, 회를 뜨는 법, 해초 등에 관한 다양한 상식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사진 자료가 부족해 어류에 관한 다른 도감을 구할 생각이다.

보는 것 자체가 즐겁다

조용미 | 시인

지도책 다음으로 도감을 좋아한다. 내가 도감을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산행 중에 만난 꽃이나 식물의 이름을 익히기 위해서다. 시를 쓸 때는 그다지 참고하지 않는다. 단지 도감 보는 것 자체가 좋아 도감을 즐겨 보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도감을 보다가 예쁜 꽃이 있으면 직접 찾아나서기도 한다. '꽃을 찾아가는 여행'을 하는 셈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도감은 《쉽게 찾는 우리 나물》(김태정), 《쉽게 찾는 우리 나무(전4권)》(서민환 외), 《쉽게 찾는 우리 곤충2 — 나비편》(이원규, 이상 현암사)다. 요즘은 LG 상록재단에서 나온 《한국의 새》(이우신 외)에 푹 빠져 있다. 세밀하게 그린 그림이 너무 예뻐 들여다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소설의 리얼리티 살리는 데 유용해

전성태 | 소설가

순천 농업진흥청에서 나온 《잡초도감》을 자주 본다. 1년 전에 구한 이 도감은 농민들을 위해 들에 피는 잡초만을 따로 모아 펴낸 것이다. 농약을 쳐야 하는 시기, 제초법 등 농사에 필요한 여러 실제적인 지식을 담고 있어 농민들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다. 농민들이 실제로 부르는 잡초들의 이름을 담고 있어 소설의 리얼리티와 현장성을 살리는 데 더 없이 좋다. 이 도감이 내 소설에 여러 도움을 준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내가 평소에 토속어로만 알고 있던 여러 잡초들의 정확한 이름도 알 수 있다. 각 지역별로 이런 종류의 도감을 펴낸다면 작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정리·김정은 기자